

주간 글로벌 철강뉴스(19년 2월 3주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Vale 철광석 공급 차질 우려로 글로벌 철광석 가격 상승

- 지난달 Vale의 광재 댐 붕괴사고 여파로 Vale가 '19년 철광석 생산량 40백만톤*을 감축하겠다고 밝힌데 이어, 추가 생산중단이 예상되는 상태

* Vale 연간 생산량의 약 9%

-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 철광석 가격 \$90/톤을 돌파했고, 주요 기관들도 철광석 가격 전망치를 상향 조정

- 중국 철강사들이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음

- 환경규제 강화로 브라질산 고품위 철광석 사용을 확대해 온 중국 철강사들의 철광석 수급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광산회사의 단기간 증산도 어려워 글로벌 철광석 수급 난항이 예상됨

◆ 美 철강사, 연이은 생산능력 확대 계획 발표

- US Steel과 Nucor가 유희설비 재가동 및 생산능력 확대 계획을 발표

- US Steel은 전기로 건설 재개 및 강관 생산능력 확장을, Nucor는 자동차용 강재 등 판재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

- 232조 시행 이후 철강재 수입 감소와 시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자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나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음

◆ 그 외 주요 뉴스

• 인도 정부, 수입산 자동차용 강재 규제 일정 연장 고려

• 중국 철강산업, 232조 영향 크게 받지 않아

• JSW, Bhushan Power 인수인향서 공개

• 중국 '18년 조선용 판재류 생산 전년비 28% 증가

• EU 규제위, Tata 스틸-TK 합작사 불공정 경쟁 유발 가능성 경고